

“우리가 최강 지원!” 경기지원을 소개합니다

10 경기지원 편

고객홍보팀

외국 속담에 ‘아는 길은 가깝고 모르는 길은 멀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이곳은 가까운데 왜 이리 취재가 힘들었는지 모르겠다. 아껴먹기 위해 남겨놓은 사탕 같은 걸까? 축평원 본원이 군포에 있던 시절에는 가장 가까운 지원이었고, 지금도 그리 멀지는 않은 지원. 서울지원과 더불어 수도권 축산물 시장을 책임지고 있는 지원. 경기지원이 12월호 주인공이자, 릴레이로 이어진 지원 탐방의 마지막 주자다.



진짜 날 제대로 잡았다. 날긋이도 이런 날긋이가 없다. 출발 전에는 비 한 방울 없었건만 곧 자동차 와이퍼를 최대 속도로 싱싱 움직여야 했을 만큼 ‘좌악좌악~~~~!’ 장대비가 쏟아진 것이다.

다행이도 경기지원 사무실이 위치한 곳이자 첫 취재처로 고른 작업장이기도 한 경기 안양 협신식품에 도착할 무렵에는 비가 그어 부슬비가 됐다. 그러나 지난 1년의 지원취재가 여러 에피소드를 동반했듯 마지막까지 하늘은 소재거리를 충분히 마련해주셨다.

일단 내비 안내에 법다 핸들을 꺾었다가 공사장 통행로로 잘못 들어가는 바람에 덤프트럭 행렬사이에서 호떡이 될 뻔했다. 혹시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은



중매인들이 볼 수 있도록 열어둔 부분육 샘플

신중하시길. 건물 바로 옆, 주차 부스까지 있어 잘 눈에 띄지 않는 오르막이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다. 게다가 잘 찾아간다 해도 늘 통로까지 꼭꼭 들어찰 만큼 만차이니 발 빠른 상황 대응능력이 요구된다.

그렇게 들어간 내부는 9시 전이지만 이미 대낮처럼



생산된 등급란 제품을 살펴보고 있는 평가사

열기가 뜨거웠다. 도착한 시간에는 경기지원의 특징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부분육 경매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곳의 부분육 경매는 2002년 민간 도매시장 최초로 시작되어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부분육 경매가 가장 활성화 되어있는 시장이다. 당시에는 부분육에 대한 신뢰 강화를 위해 도체상태에서 판정한 등급이 부분육 작업 공정 이후까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관리·점검 했었다. 현재는 쇠고기 부분육 품질공정평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에 한해서 부분육의 품질과 이력을 관리하여 부분육의 가공·유통 표준화를 유도하고 품질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협신식품도 이러한 관리를 받고 있는 품질공정지정 업체중의 하나다.

부분육 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기지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다음, 계란이다. 11월까지 누적치로 볼 때 전체 등급란 물량의 51.3%, 4억 9,772만 6,675개가 경기지원에서 나왔다. 작업장수도 14개, 총 43개 등급란 작업장의 약 1/3이 경기지원 관할지역 내에 위치한다.

양이 적은 곳은 10만개 선인 곳도 있지만 가장 많은



포장일자 보다 등급판정일자!!

용인 기흥구 소개 조인의 경우에는 판정물량이 하루 65만개 안팎에 달한다. 전체 등급란 판정 작업장 중 2위와 약 2배 정도 누적개수 차이를 보이는 명실공히 1위 작업장. 경기지원 내에서도 계란 작업량의 34.6% 가량을 조인이 맡고 있다. 작업장에 포장일보다 “등급판정일”이라고 크게 새겨 걸어놨을 정도다.

보통은 생산라인이 1개, 많아야 2개지만 이곳은 총 3개다. 1층에 있는 1개는 시간당 6만개를 처리하며, 2층에 있는 2개는 각기 3만개와 6만개짜리다. 미리 판정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하고 층을 오가며 판정한다. 행사에 뒤편에 일이 겹쳐 몰린 등급란을 처리하느라 하루 105만개까지 판정한 것이 기록 이라는데, 밤 10시 30분까지 쉴 새 없이 판정했다.

그리고 또하나, 지원적으로도 축산물품질평가원 으로서도 절대 빼고 얘기할 수 없는 “꿀”등급제의 핵이 바로 경기지원이다. 이번에 방문한 안성 농협 중앙회 축산연구원이 그곳. 시험사업 중인 꿀등급제에 참여하는 곳은 4곳이지만 시험·검사를 하여 꿀등급 판정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이곳뿐이다. (다른 곳은 소분 및 등급판정을 위한 시료 채취 등 상시적 관리와 점검 위주)



믿을 수 있어 더 좋은 그대, 허니~



판정을 위한 실험 중인 평가사

유일한 꿀등급제 품질검사 기관답게 작업환경은 연구실, 그 자체다. 들어오는 밀원으로는 아카시아가 가장 많은데, 이날은 계절 탓인지 피나무, 때죽과 같은 특수밀원이 많아 볼거리를 더했다. 아카시아나 밤 같은 주요 밀원의 채밀이 다 끝나 비수기라지만 엇그제 93드림의 등급판정 신청이 들어왔다는 이곳은 여기저기 검사를 위한 샘플이 가득했다.

게다가 환경적 특성상 다른 축종의 등급판정 등 관련 업무교육은 충북 음성 직무교육센터에서 진행하지만 꿀등급판정 교육은 여기에서만 할 수 있다.

아직 시범사업 단계이지만 지속적으로 꿀등급판정 가능인력을 추가로 양성하며 난무하는 자가 인증 꿀과는 달리 그 품질을 확실히 보증할 수 있는 국가보증 꿀의 생산·유통 환경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농정뉴스**



김철중 지원장이 이야기하는 우리지원, 그리고 2015년



“이전에 2002년 9월 부임해 와 2003년 2월말까지 근무했었다. 그때 구도축장 건물에 있었는데, 참 열악했다. 지금의 이 건물은 지은지 얼마 되지 않은 새 건물이다. 새 건물과 함께 지원 직할 작업장의 근무환경은 좋아졌지만 전체 작업장으로 확대해보면 여전히 숙제가 많다. 우리지원은 20개 작업장에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다. 작업장은 관할지역 내에 고루 분포한다. 이는 수도권을 비롯한 지역 축산물 소비시장을 빈틈없이 관리하며 건강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적화 되어 있는 구조다. 다만, 일하기에는 힘든 환경이다. 안성출장소 같은 경우는 출퇴근이 150km 이상이기에 기피 작업장이었다. 현재는 안성, 화성에 직원 숙소를 만들어 주거 및 근무여건을 개선했다. 이밖에도 업무분장이나 직원 간 단합을 위한 환경조성 등 직원들이 편안히 근무하며 역량을 120% 발휘해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원장으로서 역점이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직원들이 알아서 더 잘하는 것 같다. 덕분에 지난해 우리지원이 내부평가 1위였다.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그만큼 고민이 크다. 더욱 실적을 높여가고 싶지만, 정해져 있는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기지원장으로 2013년 1월 부임해와 근무기간이 3년여에 가깝다. 2년 이상 근무한 곳이 거의 없는데, 돌아다니며 근무한 곳 중 가장 오래 근무한 곳이다. 여전히 고민도 많고 숙제거리도 많지만,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고자 한다.”